佛브레따뉴・도르도뉴地方 先史遺蹟 踏査記
불브레따뉴　도르도뉴지방 선사유적 답사기

池　健　吉

이 글은 10개월 동안의 체불수학(滯佛修學)을 마치고 귀국(歸國)하기 앞서 현지(現地) 국제학생본부(國際學生本部)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2주간(週間)간의 선사유적답사기(先史遺蹟踏査記)를 일지체(日誌體)로 적은 것이다.

"브레따뉴(Breagne)지방(地方)은 프랑스 서단(西端)에서 대서양(大西洋)으로 돌출(突出)한 반도(半島)로서 지세(地勢)에 따라 표고(標高) 150m를 기준으로하여 서(西)쪽의 고지대(高地帶)와 그 이동(以東)의 저지대(低地帶)로 구분(區分)하고 있다.

"브레따뉴"지방은 고인돌(지석묘(支石墓): Dolmen)이나 선돌(Menhir)로 대표(代表)되는 거석문화(巨石文化)의 집중분포지역(集中分布地域)으로서 우리에게는 귀에 익었던 곳이며 Dolmen, Menhir 등의 어원(語源)도 실은 이 지방(地方)의 고유언어(固有言語)인 Breton어(語)에서 연유(緣由)하였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이곳 거석문화(巨石文化)의 유적(遺蹟)으로는 상기(上記) 고인돌과 선돌 외에도 석총(石塚)(Cairn), 선돌을 한줄 또는 몇줄로 길게 열지운 열석(列石)(Alignement), 둥글게 열지운 환상열석(環狀列石)(Cromlech), 여러개의 판석(板石)을 가지고 ㄇ형(刑)으로 덮어씌운 "턴넬"식(式)고인돌(Allee Couverte) 등 그 구조(構造)와 형식(形式)에 따른 여러 종류(種類)의 유적(遺蹟)들이 한 지역(地域)에 집중(集中)되거나 분산(分散)된 상태(狀態)로 각지(各地)에 분포(分布)되어 있다.

이 거석문화(巨石文化)의 존속기간(存續期間)은 그 종류(種類)에 따라 발생(發生)과 소멸시기(消滅時期)가 모두 같지 않지만 대개(大槪) 그 발생(發生)은 신석기단계(新石器段階)인 서기전(西紀前) 4,000년대(年代)에 이루어져 향후(向後) 약 2,000년간(年間), 다음의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가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프랑스 서남(西南)쪽의 내륙(內陸)에 위치(位置)한 "도르도뉴(Dordogne)지방(地方)은 석회암(石灰岩)으로 형성(形成)된 고원지대(高原地帶)로서 고원(高原)사이의 계곡(溪谷)에는 대개 대소(大小) 하천(河川)이 흐르며 계곡양안(溪谷兩岸)은 급격(急激)한 단애(斷崖)를 이루고 있다.

이 석회암(石灰岩)의 단애상(斷崖上)에는 오랜동안의 침식(侵蝕)에 따라 곳곳에 자연동굴(自然洞窟)이 만들어졌으며 이 동굴(洞窟)이 발견(發見)되고 그 중에서는 암벽(岩壁)에 그려진 채색화(彩色畵), 선각화(線刻畵), 부조화(浮彫畵)등 주로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 후기(後期)에 해당(該當)하는 당대(當代) 원시예술(原始藝術)의 형적(形迹)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많다.

1975년 6월 16일

아침 일찍 빠리를 떠나 기차편(汽車便)으로 "렌느"(Rennes)에 도착(到着)한 때가 정오경(正午頃).

역구(驛區)까지 마중나온 "렌느"대학(大學)의 J. Briard교수(敎授)의 안내(案內)를 받

아 “선녀(仙女)의 바위”(La Roche aux Fees)에 닿았다.

한 청년(青年)과 선녀(仙女)와의 전설(傳說)이 얽힌 이 편암제(片岩製)의 고인돌은 40톤이상의 거석(巨石) 6개를 포함하여 모두 42개의 대판석(大板石)과 괴석(塊石)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전방부(前方部)에 따로 전실(前室)이 마련된 이 거석물(巨石物)은 지금까지의 조사결과(調査結果) 다른 동류(同類)의 것과는 달리 매장시설(埋葬施設)이 아닌 하나의 기념물(記念物)로 추정(推定)되고 있는 것이었다.

이따금 내리는 빗속에서 간단한 조사(調査)를 마치고 한시간 가량의 차(車)를 달려간 곳이 “꼬쥬”(Demoiselle de Cojoux). 이곳에는 부정형(不整形)의 괴석(塊石)을 이열(二列)로 세운 열석(列石)이 거의 동서(東西)로 길게 뻗어 있었다. 열석(列石)을 이루는 돌 하나 하나가 다른 열석(列石)들과는 달리 장대석(長大石)이 아닌 괴석(塊石)인 것이 특이(特異)하였다. 5~6m의 간격으로 조밀(稠密)하게 열(列)지어 있었으나 군데군데 없어진 공간(空間)은 아마 후대(後代)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일 것이라는 교수(敎授)의 설명(說明)이었다. 이곳에서 다시 쎙・쥐스트(St. Just)라는 곳으로 가서 지도상(地圖上)에 나타나 있는 “턴넬식”(式) 고인돌을 찾기 위해 한시간 가까이 구릉주위(丘陵周圍)를 헤맸다. 교수(敎授)도 10여년전(餘年前)에 한번 온 곳인데도 기억(記憶)이 확실하지 않다면서 몇번을 오르내리다 덤불 속에 덮여 있던 것을 가까스로 찾았다. 높이 1m 내외(內外)에 길이가 6m되는 이 “턴넬”식(式) 고인돌이 지금은 한쪽 끝에 2매(枚)의 판석(板石)만 얹혀 있을 뿐 나머지 개석(蓋石)은 근처(近處)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교수(敎授)에게 몇번이나 미안(未安)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내려와 “렌느”로 달렸다.

6월 17일

아침에 숙소(宿所)까지 찾아오신 교수(敎授)와 “렌느”대학(大學)으로 가서 그 분의 연구실(硏究室)을 찾았다.

이 대학(大學)의 선사(先史)・원사고고학연구소(原史考古學硏究所)에서는 일반고고학(一般考古學)의 연구(硏究)도 진행(進行)되고 있지만 특(特)히 이 지방(地方)에 집중분포(集中分布)된 거석문화(巨石文化)의 연구(硏究)는 다른 어느 곳보다 연구활동(硏究活動)도 활발(活潑)할 뿐 아니라 여기에 소장(所藏)된 이 분야(分野)의 풍부(豊富)한 자료(資料)는 이 연구소(硏究所)를 거석문화연구(巨石文化硏究)의 본산지(本山地)로 키운 계기(契機)가 된 것 같았다. 여기에 갖추어진 유물자료실(遺物資料室)과 박물관(博物館) 외에 유물(遺物)의 분석(分析)과 보수(補修), 복원(復元)을 위한 각종(各種) 시설(施設)과 기구(機具)가 분명(分明) 이 이방인(異邦人)의 눈에는 놀라울 뿐이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그 분들의 저서(著書)나 인용목록(引用目錄)에서만 대(對)할 수 있었던 Giot 교수(敎授)나 Le Roux 교수(敎授)등을 만나 볼 수 있었다. 특히 Giot 교수(敎授)는 그 분이 관장직(館長職)을 겸(兼)하고 있는 Finistere선사박물관(先史博物館)에 가게 되거든 자기(自己) 개인연구실(個人硏究室)겸 숙소(宿所)가 마련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묵도록 하라는 호의(好意)와 함께 소개장(紹介狀)을 써 주었다.

또 그분들께서 주신 갖가지 자료(資料)를 한묶음 싸들고 이곳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뿌듯한 감사(感謝)의 정(情)을 느꼈다. 시내(市內)로 나와 Bretagne박물관(博物館)을 찾아 마침 이 날이 정기휴일(定期休日)임에도 Briard교수(敎授)의 주선으로 함께 진열실(陳列室)을 둘러볼 수 있었다. 기차시간(汽車時間)에 맞춰 서둘러 역(驛)으

로 나가 만 하루동안 생면부지(生面不知)였던 나를 위해 시간을 내셨던 그 분에게 심심(深甚)한 감사(感謝)를 드리고 바로 어제 타고왔던 기차(汽車)를 타고 서(西)쪽으로 달렸다. 4시간(時間)만에 Lannion에 도착(到着)하여 다시 버스를 타고 간 곳이 Trébeurden이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우선 바닷가의 조그만 "유스 호스텔"에 숙소(宿所)를 정(定)한 때가 오후 여섯시경(頃)이었으나 하지(夏至) 가까운 태양(太陽)은 아직 중천(中天)에 있어 근처(近處)의 자전거포(自轉車舖)를 찾아 세(貰)를 내어 빌렸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닿은 곳이 쌩·뒤젝(St. Duzec)의 선돌. 높이 5m에 폭(幅) 2m가량의 거대(巨大)한 이 선돌의 상단중앙(上段中央)에는 후세(後世)의 가공(加功)이 분명(分明)한 예수를 부각(浮刻)한 돌십자가(十字架)가 꽂혀있었다. 선돌의 상부전면(上部前面)에도 돌십자가(十字架)와 동시(同時)에 새겨졌다고 하는 기도(祈禱)하는 여인초상(女人肖像) 등 갖가지 형상(形像)이 조잡(粗雜)한 수법(手法)으로 부각(浮刻)되어 있었다. 이 뒷면에는 상단(上段)부터 하반부(下半部)에 이르기까지 아홉군데에 굵은 홈이 위아래로 거의 평행(平行)으로 길게 패여있었다. 확실(確實)한 것은 알수 없지만 이 거석(巨石)을 세울 때 밧줄을 얽어매기 위해 일부러 홈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아직 해가 두어뼘은 남아있었지만 근처(近處)의 다른 유적지(遺蹟地)는 소재(所在)만 알아두고 숙소(宿所)로 돌아왔다.

6월 18일

아침 일찍 숙소(宿所)를 나서 어제 마지막으로 본 선돌에서 멀지않은 곳에 위치(位置)한 "턴넬"식(式) 고인돌을 찾았다. 이것은 해안(海岸)을 따라 길게 뻗은 차도변(車道邊)의 잡초(雜草)가 우거진 평지(平地)에 위치(位置)한 것으로 각(各)10여매의 자연판석(自然板石)을 두줄로 평행(平行)하게 세워 그위에 6매(枚)의 개석(蓋石)을 얹은 형식(形式)이었다. 벽석(壁石)은 모두 안쪽으로 약간 기울어진채 동서(東西)로 길게 세워져 있었으며 서(西)쪽에는 일매판석(一枚板石)으로 막아 마구리돌로 하였다. 여기에서 다시 300m가량 해안(海岸)쪽으로 나가면 육지(陸地)와 맞붙은 Ile Grande라는 섬이 있고 이섬의 동단부(東端部)에 또 다른 한의 "턴넬"식(式) 고인돌이 있었다. 이 고인돌로 동서(東西)로 길게 세워졌으며 마찬가지 석실(石室) 서(西)쪽만이 마구리돌로 막혀 있고 동(東)쪽은 개방(開放)되어 있었으나 개석(蓋石)으로는 2매(枚)의 대판석(大板石)만으로 덮어둔 것이었다. 이 고인돌 가장자리에서 1m쯤 떨어져 대개 1m쯤 떨어져 1~2m간격으로 몇개의 판석(板石)이 세워진 상태(狀態)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북편(北便)에는 2개만이 남아 있었다.

오던 길로 다시 나와 바다를 왼쪽을 끼고 해변(海邊)을 따라 동북(東北)쪽으로 올라가다가 도로변(道路邊) 좌측(左側)에 위치(位置)한 고인돌 1기(基)를 찾았다. 지금은 남편(南便) 2매(枚), 북편(北便) 1매(枚)의 지석(支石) 위에 대판석(大板石) 1매(枚)가 개석(蓋石)으로 얹혀 있지만 원래(原來)는 동서(東西)로 길게 놓인 "턴넬"식(式) 고인돌이었던 것으로 도로(道路)를 만들 때 도로면(道路面)에 향(向)한 동반부(東半部)가 잘리워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여기에서 다시 동북(東北)쪽으로 3㎞가량 달려가다가 오른쪽 소로(小路)에 접어들어 Kerguntuil의 외딴집 옆의 고인돌 1기(基)에 닿았다. 동서 4m, 남북(南北) 2m에 높이 1.8m의 이 장방형(長方形) 석실(石室) 위에는 대판석(大板石)의 개석(蓋石) 1매(枚)가 얹혀 있었는데 일변(一邊) 2m 내외(內外)의 방형지석(方形支石)은 지금 서(西)·남(南)·북변(北邊)에만 각(各) 1매(枚)씩 남아있을 뿐 없어진 부

분(部分)은 부정형(不整形)의 할석(割石)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이것은 후세(後世)에 보강(補强)된 것임에 틀림없었다. 석실(石室)바닥에는 수매(數枚)의 자연판석(自然板石)이 깔려 있었고 그 저면(底面)은 현재(現在)의 지표(地表)보다 70㎝정도(程度) 낮았다. 이 고인돌의 남(南)쪽 150m에 동서(東西)로 긴 또 하나의 "턴넬"식(式)고인돌이 있었다. 남북(南北) 양벽(兩壁)은 6~7매(枚)의 지석(支石)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동서(東西) 양쪽 끝은 각 1매(枚)의 마구리돌로 막혀 있었으며 지석(支石) 위에는 4매(枚)의 개석(蓋石)이 얹혀있는 완전(完全)한 것이었다. 다만 지석중(支石中) 바로 서북우(西北隅)의 북편지석(北便支石) 한개가 제거(除去)되어 있어 이곳을 통(通)해 석실(石室) 내부(內部)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석실내벽중(石室內壁中) 북편지석(北便支石) 2매(枚)의 표면(表面)에는 타원형(楕圓形)·반월형(半月形)·호형(弧形)을 기조(基調)로 이루어진 의미(意味)를 알 수 없는 음각문(陰刻文)들이 가로로 길게 배열(配列)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추상적(抽象的)인 음각문(陰刻文)은 뒤에 본 다른 고인돌의 석실내벽(石室內壁)이나 천정부(天井部)에서 종종 볼수 있었으나 이것이 당시(當時) 거석문화인(巨石文化人)들의 문자(文字)인지 아니면 주술적(呪術的)인 의미(意味)에서 그려진 일종(一種)의 음각화(陰刻畵)인지는 아직까지 확실(確實)히 구명(究明)되지 않은 것 같았다.

이 지역(地域)의 거석문화유적(巨石文化遺蹟)의 분포(分布)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으로 기록(記錄)되어 있었지만 다시 동북(東北)쪽으로 2㎞ 가면 아름다운 해변(海邊) 풍경(風景)과 기암괴석(奇岩怪石) 등으로 이름난 Tregastel 해안(海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전차(自轉車)로 달렸다. 해변(海邊)에 이르러 대서양(大西洋)의 쌉쌀한 바닷내음을 마시며 마련해 온 빵과 과일로 점심을 때우고 마을로 나와 수족관(水族館)과 함께 만들어진 선사박물관(先史博物館)을 찾았다.

마치 작은 언덕만한 크기의 거암(巨岩) 속에 만들어진 이 박물관(博物館)에는 오전중(午前中)에 들러온 Kerguntuil의 "턴넬"식(式)고인돌에서 출토(出土)된 일괄유물(一括遺物)을 비롯해서 이 지방(地方)에서 출토(出土)된 각종유물(各種遺物)들이 출토상태(出土狀態)대로 입체적(立體的)으로 진열(陳列)되어 있었다. 다시 해변(海邊)으로 나가 마치 인공적(人工的)으로 배치(配置)해 놓은 것 같은 기암(奇岩)들을 바라보며 잠깐 숨을 돌린 후 오던 길을 되돌아서 오늘의 마지막 행정(行程)인 우주위성(宇宙衛星) 중계소(中繼所)의 선돌을 찾기로 했다. 이곳은 어제 오후(午後)에 찾아간 St. Duzec의 선돌을 지나서 산비탈을 올라가야 되는 길이었다. 안간힘을 써서 산봉우리까지 자전거(自轉車)를 이끌고 올라가 거대(巨大)한 규모(規模)의 위성중계소(衛星中繼所)의 시설물(施設物)사이에 위치(位置)한 선돌을 찾았다. 높이 4m의 이 선돌은 작은 자연판석(自然板石) 여러매(枚)가 가지런히 깔린 부석(敷石)의 볼록한 기단(基壇)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런데 이 선돌의 전면상부(全面上部)를 약간 깎아내고 이 위성중계소(衛星中繼所)가 1962年 드·골 대통령(大統領)의 발의(發議)에 의(依)해 세워지게 되었다는 글이 새겨진 석판(石板)을 박아두어 고소(苦笑)를 자아내게 하였다. 숙소(宿所)에 돌아와 급히 짐을 챙겨 Lannion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탔다. 내일 새벽차(車)를 타고 다음 행선지(行先地)로 가야되기 때문에 역근처(驛近處)에 숙소(宿所)를 정(定)하고 시내(市內)구경을 나섰다.

6월 19일

이른 새벽차(車)를 타야되기 때문에 선잠으로 밤을 새우다 새벽녘에 약간 눈을 붙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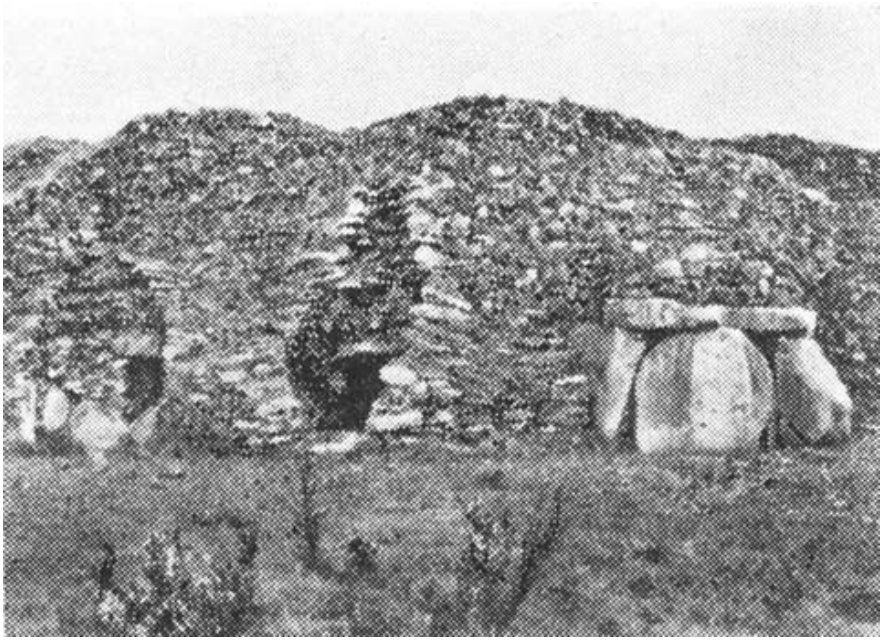
던 것이 그만 발차(發車)시간 10여분 전에야 깨었다. 허둥지둥 짐을 챙겨 역(驛)에 도착한 것이 예정 발차(發車)시간 1분후(分後)인 6시 16분, 그러나 차(車)는 어김없이 정시(定時)에 떠나고 없었다. 그렇다고 정오경(正午頃)에 출발(出發)하는 버스를 기다릴 수도 없어 지나가는 승용차를 빌어타고 Plouaret까지 와서 다시 기차(汽車)를 타고 Morlaix에 닿았다. Morlaix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Plouezoch까지 와서 택시로 Barnenez까지 갔다.

지금까지 프랑스를 비롯해 인근(隣近)의 몇 나라를 돌아 다니면서 겪었던 것은 우선 우리나라보다는 교통편(交通便)이 무척 까다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리 행선지로 가는 기차(汽車)나 버스 시간표(時間表) 또는 도보시(徒步時)의 소요시간(所要時間)등을 확실히 알아두지 않으면 한나절 혹은 하루를 헛탕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도 Plouezoch에서 Barnenez까지는 4㎞ 남짓되는 길이었지만 두시간 밖에 시간이 없어서 도보왕복(徒步往復)으로는 도저히 유적지(遺蹟地)를 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없는 돈에 편도(片道)만은 부득이 택시를 이용(利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Barnenez의 석총(石塚)은 내륙(內陸)에서 북(北)쪽으로 길게 뻗은 반도(半島)의 바로 해변(海邊) 구릉상(丘陵上)에 위치(位置)해 있었다. 동(東)쪽에서 약간 편북(遍北)하여 동서(東西)로 긴 이 석총(石塚)은 현무암(玄武岩)의 할석(割石)을 차곡차곡 쌓아 이룬 길이 90m, 최대폭(最大幅) 40m에 현고(現高) 7~8m의 거대(巨大)한 규모(規模)였다. 이 석총(石塚)의 내부(內部)에는 모두 긴 선도(羨道)가 달린 석실(石室) 11개가 거의 등간격(等間隔)을 두고 동서(東西)로 길게 병렬(竝列)되어 있었다. 모두 남향(南向)한 선도(羨道)는 길이 7~12m로서 벽석(壁石)과 천정석(天井石)은 화강암(花崗岩)과 현무암(玄武岩)의 대판석(大板石)으로 이루어졌었다.

선도(羨道) 안쪽의 석실(石室)은 11개가운데 8개가 현무암(玄武岩)의 할석(割石)을 쌓아 이루어진 궁륭형(穹窿形) 천정(天井)이었고 나머지 3개는 화강암(花崗岩)의 대판석(大板石)을 마치 고인돌식(式)으로 쌓아 만든 석실(石室)이었다.



Barnenez 석총(石塚)의 일부(一部)

장구(長久)한 세월(歲月)동안 붕괴상태(崩壞狀態)로 방치(放置)되었던 이 석총(石塚)은 1955年부터 1968年까지 14年동안에 프랑스에 많은 고고학자(考古學者)와 고건축학자(古建築學者)가 동원(動員)된 조사단(調査團)에 의(依)해 발굴작업(發掘作業)과 복원공사(復元工事)가 동시(同時)에 이루어졌다고 하며 이 발굴조사(發掘調査)를 통(通)해 이 중 가장 오래된 석실중(石室中) 하나의 연대(年代)가 서기전(西紀前) 3800年까지 올라 간다는 결과(結果)를 얻었다고 한다. 현재(現在) 서반부(西半部)의 북편(北便) 적석(積石)은 모두 제거(除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북(北)쪽 단면(斷面)에서 5개의 노출(露出)된 석실(石室)의 생생한 단면(斷面)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Plouézoch까지 걸어나와 여기서부터 7시간동안 버스와 기차(汽車)를 번갈아 타며 도착(到着)한 곳이 프랑스 최서단부(最西端部)에 위치(位置)한 St. Guenolr. “렌느”대학(大學)의 Giot교수(敎授)가 쥐어준 소개장(紹介狀)을 들고 Finistere 선사박물관(先史博物館)을 찾았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은 규모(規模)의 박물관(博物館)이었지만 앞뜰에 옮겨져 전시(展示)된 각종(各種)의 거석물(巨石物)들은 이 지방(地方)의 거석물(巨石物)의 특색(特色)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마련해 둔 듯한 인상적(印象的)인 것이었다. 박물관(博物館) 내부(內部) 구경은 내일 하기로 하고 관리인(管理人)을 찾아 소개장(紹介狀)을 내밀자 40세 안팎의 중년주부(中年主婦)인 이들은 친절(親切)히 방(房)까지 안내(案內)해 주며 필요(必要)한 취사도구(炊事道具)일체와 간단한 부식(副食)이 마련되어 있으니 마음대로 이용(利用)하라고 열쇠까지 맡겼다.

6월 20일

아침나절 박물관(博物館) 내부(內部)에 진열(陳列)된 유물(遺物)을 관람(觀覽)하였다. 규모(規模)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제 들려온 Barnenez석총(石塚)의 출토유물(出土遺物)을 비롯해서 “브레타뉴”지방(地方)의 거석문화(巨石文化)를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편년식(編年式)으로 분류(分類) 시켜둔 도표(圖表) 등(等) 알찬 전시관(展示館)이라고 생각되었다. 앞뜰에 복원전시(復元展示)된 거석물(巨石物)들을 다시한번 둘러보고 마을로 나와 다음의 Carnac으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브레타뉴”지방(地方)에서도 거석문화(巨石文化)의 대종격(大宗格)으로 불리우는 Carnac으로 향(向)한다는 기대(期待)에 버스에 오르면서부터 벌써 마음이 부풀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이 지방(地方)의 거석문화(巨石文化)에 대(對)해서는 오래 전 부터 익히 들어왔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한번 들르는 것이 프랑스에 처음 도착(到着)해서 부터의 간절한 꿈이었었다.

Carnac에 도착(到着)하여 우선 숙소(宿所)를 정(定)하여 여장(旅裝)을 푼 뒤 가까운 J.Miln-Z. Le Rouzic박물관(博物館)을 찾았다. 워낙 오래된 박물관(博物館)인 때문인지 좁은 공간(空間)에 너무 많은 유물(遺物)들이 진열(陳列)되어 답답한 인상(印象)이었으나 거석물(巨石物)의 표면(表面)에 음각(陰刻)된 많은 음각문(陰刻文)의 복제품(複製品)만을 전시(展示)하고 있는 측실(側室)은 매우 볼만한 것이었다고 생각되었다. 박물관(博物館)을 나서서 아직 해는 조금 남아있었지만 오늘은 이만 쉬기로하고 벌써 하루의 인파(人波)가 끊긴 조용한 해변(海邊)을 거닐었다.

6월 21일

어제 도착(到着)해서 미리 예약(豫約)해둔 자전거(自轉車)를 빌어타고 시내(市內)를 빠져나와 북(北)쪽으로 1㎞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位置)한 유명(有名)한 Ménec열석(列

石)에 이르었다. 약간 굴곡(屈曲)진 광활(廣闊)한 평야(平野)에 펼쳐진 위용(偉容)에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 보다가 이 열석(列石) 사이로 빠져나와 열석(列石)이 끝나는 서단부(西端部)의 환상열석(環狀列石)에 이르렀다. 이 Ménec의 열석(列石)은 연장(延長) 1,167m, 폭(幅) 100m 내외(內外)의 긴 열석(列石)으로서 여기에는 높이 60㎝되는 작은 선도에서부터 4m에 이르는 거대(巨大)한 것에 이르기까지 각양(各樣)의 1,099개가 11열(列)을 이루어 서남서(西南西)에서 동북동(東北東)쪽으로 길게 뻗은 것이었다. 이 열석(列石)의 서단부(西端部)에는 다시 70개의 선돌로 이루어진 환상열석(環狀列石)이 민가(民家)사이를 돌아가고 있었다. 열석(列石) 사이를 지나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 Ménec열석(列石)의 동단(東端)에 이르렀다. 240m가량 공지(空地)로 되어 열석(列石)이 중단(中斷)되다가 다시 시작(始作)되는 곳이 Kermario열석(列石). 이 제이열석(第二列石)도 서(西)쪽의 Ménec과 같은 선돌 1,029개가 10열(列)로 세워진 연장(延長) 1,120m, 폭(幅) 100m내외(內外)의 동서로 긴 열석(列石)이었다. 이 열석(列石)의 서단부(西端部)에도 원래(原來) Ménec에서와 같은 환상열석(環狀列石)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은 그 흔적(痕迹)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열석(列石)의 서단부(西端部) 남(南)쪽에 일기(一基)의 짧은 선도(羨道)가 달린 고인돌이 있었다. 입구(入口)가 동남(東南)쪽을 향(向)한 이 고인돌은 화강암(花崗岩)의 대판석(大板石)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선도(羨道)에만 개석(蓋石)이 남아 있었다. 이 Kermario열석(列石)의 동단(東端)에 이르러 다시 400m가량 열석(列石)이 중단(中斷)되다가 또 다시 제삼(第三)의 Kerlescan열석(列石)이 시작(始作)된다. 이 열석(列石)의 서단(西端)에는 환상열석(環狀列石)의 일부(一部)가 남아 있었으며 도중(途中)에 열석(列石)이 중단(中斷)된 200m를 포함시켜 전장(全長)은 880m로서 모두 594개의 선돌이 13열(列)로 배열(配列)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대략(大略) 동서(東西)로 계속(繼續)된 第1・2・3열석(列石)의 총연장(總延長)은 4㎞에 이르렀으며 현재(現在) 남아 있는 선돌의 수(數)도 주위(周圍)에 넘어져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두 3,000여개에 달(達)하는 거대(巨大)한 열석군(列石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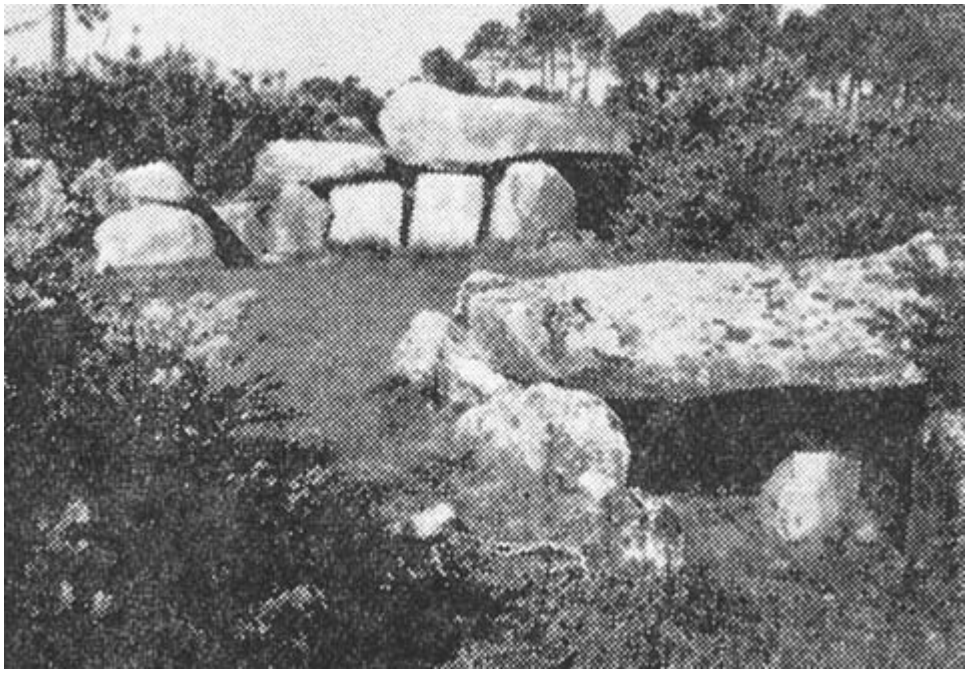
이 열석군(列石群)의 동단부(東端部)에서 북(北)쪽으로 나있는 소로(小路)를 따라 가다가 다시 서(西)쪽으로 꺾어지는 대로(大路)로 내려가 노변(路邊) 우측(右側)의 민가(民家) 옆에 자리한 고인돌에 다달았다.

이 Runesto 고인돌은 일변(一邊) 4m 가량의 방형석실(方形石室)로서 지금 석실(石室) 위에는 길이 4.5m, 폭(幅) 2.5m, 두께 1m되는 두터운 개석일매(蓋石一枚)가 서(西)쪽에 치우쳐 얹혀 있지만 원래(原來)는 동편(東便)에도 개석(蓋石) 일매(一枚)가 더 얹혀 있었던 것 같았다.

이 고인돌은 다른 것과는 달리 현지표(現地表)가 개석(蓋石) 바로밑, 즉(卽) 벽석(壁石) 상부(上部)까지 덮혀 있어 석실(石室) 자체(自體)가 지하(地下)로 들어간 것이다. 개방(開放)된 동(東)쪽의 입구(入口)에는 사단(四段)의 계단(階段)이 설치(設置)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근세(近世)에 만들어진 것 같았다.

Runesto 고인돌에서 동북(東北)쪽으로 500m가량 떨어진 Keriaval에 다실(多室)의 고인돌 일기(一基)가 있었다. 동남(東南)에서 서북(西北)쪽으로 설치(設置)된 통로(通路)가 나있고 통로서단(通路西端)에 일실(一室), 동측(東側)에 이(二)개의 측실(側室)이 설치(設置)되어 있었다. 그런데 개석(蓋石)은 삼실(三室)의 상면(上面)에만 얹혀 있었고 통로(通路)는 개석(蓋石)없이 그대로 개방(開放)된 상태(狀態)였다. 여기에서 북(北)쪽으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2개의 고인돌이 장축(長軸)을 서로 직각(直角)으로 하고 인접(隣接)해 있는 Mané-Kerioned 고인돌이 있었다. 2개 모두가 일부(一部) 치석(治石)한 것도 있는 대판석(大板石) 여러매(枚)를 지석(支石)으로 하고 그 위에 개석(蓋石)을 얹은 동일형식(同一形式)의 "턴넬"식(式) 고인돌이었다. 서(西)쪽의 것은 20도(度)가량 편동(偏東)한 남북(南北)으로 긴 길이 9m 폭(幅) 2.5m의 고인돌로서 지석(支石) 상부(上部)에 4매(枚)의 개석(蓋石)이 얹혀 있었으나



Man-Kerioned 고인돌

개석(蓋石)들이 서로 연접(連接)되지 않고 띠엄 띠엄 떨어져 있었다. 이 고인돌에서 동(東)쪽으로 6m가량 떨어진 또 하나의 10도(度) 편남(偏南)한 동서(東西)로 긴 고인돌로서 서(西)쪽의 것과 비슷한 규모(規模)였으나 개석(蓋石)은 동서(東西) 양단부(兩端部)에 각(各) 1매(枚)씩만 남아 있었다. 여기에서 대로(大路)로 나와 다시 동북(東北)쪽으로 나가다가 우측(右側)의 소로(小路)로 접어들면 약간 비탈진 고갯마루에 저경(底徑) 30㎝, 현고(現高) 7m 가량의 Crucuny 봉토분(封土墳)(Tumulus) 1기(基)가 있고 그 정상부(頂上部)에 높이 2.5m의 선돌 1개가 서 있었다. 한 주민(住民)의 말에 의(依)하면 이 봉토분(封土墳)은 1922年에 발굴(發掘)되었다 하며 내부(內部)에 석실(石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곳에서 남(南)쪽으로 내려와 Roch-Feutet의 고인돌에 이르렀다. 길이 6m, 폭(幅) 2.5m의 동서(東西)로 긴 이 고인돌은 북(北)쪽에 5개, 서(西)쪽에 3개의 지석(支石)이 세워져 있었으나 남(南)쪽에는 서반부(西半部)에만 2개의 지석(支石)이 남아있었고 동(東)쪽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석(支石) 위에는 지금 모두 길이 3m되는 3개의 긴 개석(蓋石)이 얹혀있었지만 원래는 동단부(東端部)에도 개석(蓋石) 1매(枚)가 더 얹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이 지석(支石)의 동반부(東半部)의 상단(上端) 높이가 서반부(西半部)보다 한

층 낮아져서 자연(自然) 동편개석(東便蓋石) 1매(枚)의 상단부(上端部)와 서편(西便)에 얹힌 다른 2매(枚)의 개석(蓋石) 상단부(上端部)와는 1m가량의 높이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서 나와 아침에 본 Kermario열석(列石)의 바로 남(南)쪽에 한 중세(中世)때의 고성(古城) 후정(後庭)에 위치(位置)한 Kercado 봉토분(封土墳)을 찾았다. 저경(底徑) 30m, 봉토(封土)높이 3.5m의 이 봉토분(封土墳) 내(內)에는 남(南)쪽으로 선도(羨道)가 달린 고인돌이 있었고 봉토정상부(封土頂上部)에는 선돌 1개가 서 있었다. 석실(石室)로 통(通)하는 선도(羨道)는 양측(兩側) 벽(壁)을 판석(板石)으로 세우고 판석(板石) 위에 다시 할석(割石)을 2~3단(段) 포개쌓은 다음 그 위에 대판석(大板石)의 선도개석(羨道蓋石)을 얹은 것이었다. 길이 6m, 높이 1.8m, 폭(幅) 1m되는 선도(羨道)의 양측벽(兩側壁)과 개석(蓋石) 일부(一部)에 역시 의미(意味)를 알 수 없는 몇개의 음각선(陰刻線)이 그어져 있었다. 내부(內部)의 석실(石室)은 일변(一邊) 2.5m의 방형(方形)으로서 천정부(天井部)는 벽석(壁石)의 상부(上部)에 판석(板石)으로서 안쪽으로 체감(遞減)되게 쌓아 올렸다.

석실(石室) 내부(內部)에는 북벽(北壁) 가까이에 높이 1.8m의 선돌 한개가 서 있었다.

여기에서 나와 Carnac으로 향(向)해 이곳에서의 마지막 행선지(行先地)인 Carnac 마을 동단(東端)에 위치(位置)한 St. Michel봉토분(封土墳)에 닿왔다. 봉토(封土) 저경(底徑) 120m, 높이 12m의 이 봉토분(封土墳)은 흙과 돌을 사용(使用)하여 혼축(混築)된 것으로서 봉토(封土) 저부(低部)에 여러개의 묘실(墓室)이 설치(設置)되어 있었다. 매점(賣店)에서 양초를 사들고 서(西)쪽으로 뚫린 입구(入口)를 통(通)해 안으로 들어가면 석벽(石壁)으로 구축(構築)된 통로좌우(通路左右)에 모두 19개의 묘실(墓室)이 있고 동편(東便) 구석에 3개의 고인돌이 위치(位置)해 있었다. 고인돌 못미처에서 다시 남북(南北) 양쪽으로 길게 뚫린 통로(通路)가 설치(設置)되어 있었으나 남북통로(南北通路)의 연변(沿邊)에는 묘실(墓室)의 시설(施設)이 없었는데 관람객(觀覽客)들은 그 중 남(南)쪽 통로(通路)를 통(通)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다.

이 봉토분(封土墳)은 1862年에 첫 조사(調査)가 시작되었고 그 뒤 1900年부터 1906年까지 7年동안 본조사(本調査)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 조사(調査)를 통(通)해 중앙(中央)의 고인돌 내부(內部)에서는 화장(火葬)시킨 유체(遺體)의 두개골(頭蓋骨)들과 함께 39개의 석부(石斧), 그리고 진주 목걸이 한개가 출토(出土)되었다고 한다. 현재(現在) 이 봉분(封墳) 위에는 조그만 교회(敎會)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것으로 Carnac의 거석문화유적지답사(巨石文化遺蹟地踏査)를 마치고 짐을 챙겨 버스를 타고 다시 이곳에서 동(東)쪽으로 15㎞가량 떨어진 Locmariaquer로 향했다.

이 Locmariaquer지역(地域)은 좁은 범위(範圍) 안에 많은 유적(遺蹟)이 분포(分布)되어 있는 곳이어서 내일 아침까지 이곳에서 머무르기로 하였다. 오늘이 마침 토요일(土曜日)이기 때문에 미리 숙소(宿所)를 정(定)해야만 될 것 같아 도착(到着)하자마자 곧장 마을의 "호텔"을 찾았으나 이 마을에 있는 세군데의 호텔이 모두 다 빈방이 없다는 대답이었다. 아찔한 생각이 앞섰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다른 방도(方途)도 없고 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들르기로 하고 가까운 유적지(遺蹟地)를 찾아 나섰다.

처음 들른곳이 마을 서(西)쪽의 밭두락 사이에 자리잡은 Mané-Ruthual고인돌.

동남동(東南東)쪽으로 입구(入口)가 나있는 이 고인돌은 길이 18m, 높이 1.6m, 폭(幅) 1.5m되는 상당히 큰 규모(規模)의 것이었다. 구조(構造)는 다른 고인돌과 마찬가지 대판

석(大板石)으로 지석(支石)과 개석(蓋石)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서(西)쪽에 놓인 개석(蓋石) 하나는 길이 12.5m, 폭(幅) 4.3m에 두께 80㎝ 내외(內外)의 거판석(巨板石)이었고 그 동(東)쪽에 작은 판석(板石) 4개가 얹혀 있었다. 이 고인돌의 주위(周圍)에는 입구(入口)쪽을 제외(除外)한 지석(支石) 내면(內面)은 모두 봉토(封土)에 묻혀 있었다. 한편 석실내부(石室內部)에는 서(西)쪽 구석에 남북(南北)으로 길게 괴석(塊石)을 깔아 동(東)쪽과는 구획(區劃)진 별실(別室)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바닥의 높이도 서(西)쪽의 주실(主室)보다 30㎝가량 높게 돋아 두었었다.

여기에서 북(北)쪽으로 700m가량 되는 것에 거대(巨大)한 선돌 한개가 몇조각으로 깨어진 상태(狀態)로 흩어져 있었다. 지금 이곳에는 네조각이 남아 있었는데 원래는 다섯조각으로 깨어졌던 것이지만 한 조각은 여기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이 선돌의 원래 높이가 20.3m. 그 무게는 348톤에 달(達)하는 웅대(雄大)한 것이지만 현재(現在) 그 건립(建立) 시기(時期)나 도양(倒壤)의 원인(原因)등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한다.

이 선돌의 바로 동편(東便)에 "상인(商人)들의 탁자(卓子)"(Table des Marchands)라 불리우는 고인돌 1기(基)가 저경(底徑) 36m의 봉토분(封土墳) 밑에 구축(構築)되어 있었다. 남(南)쪽으로 입구(入口)가 뚫린 이 고인돌은 모두 17개의 지석(支石)과 3개의 개석(蓋石)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은 근간(近間)에 복원(復元)된 것이며 원래(原來)는 봉토(封土)없이 3개의 지석(支石)위에 대형개석(大形蓋石) 1매(枚)만 얹혀 있었다고 한다.

안쪽 구석에는 사변(斜邊)이 완곡(緩曲)한 삼각형(三角形)의 형태(形態)를 갖춘 판석(板石) 한개가 세워져 있었는데 앞면 전면(全面)에 걸쳐 말각(末角)ㄱ자(字) 문(文)이 가로로 중복(重複)된 형태(形態)의 양출(陽出)된 무늬가 좌우(左右) 대칭(對稱)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에 대(對)해서는 이것이 태양(太陽)을 둘러싼 밀이삭의 형태(形態)하고 해석(解釋)되고 있으며 또 개석(蓋石)의 중앙부(中央部)에도 한 동물(動物)이 이끄는 쟁기의 형태(形態)를 그린 음각화(陰刻畵)가 새겨져 있었다. 다시 마을로 나와서 세군데의 "호텔"에 들려 빈방을 확인(確認)하였으나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막무가내 민박(民泊)을 요청(要請)해 봐야 피부(皮膚)빛이 다른 나를 선뜻 받아줄 것 같지도 않아 노숙(露宿)으로 마음 먹고 근처(近處)의 장소(場所)를 마음 속으로 짚어봤다. 생각나는 곳이 처음 이곳에 도착(到着)해서 들렀던 Mané-Ruthual 고인돌 속. 외진 밭두락 사이에 있어 남에게 노출(露出)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석실내부(石室內部)가 넓직해서 노숙장소(露宿場所)로는 안성맞춤일 것 같았다. 아직은 햇살이 남아 있어 마을에서 남(南)쪽으로 1.5㎞가량 떨어진 해변(海邊)에 위한 Pierre Plate 고인돌을 찾았다. 남(南)쪽으로 입구(入口)가 나 있는 선도(羨道) 내부(內部)에 평면(平面) 원형(圓形)의 석실(石室)이 있고 선도(羨道)의 중간(中間)쯤에 좌측(左側)으로 뚫린 또 하나의 평면방형(平面方形)의 석실(石室)이 있었다. 이 석실(石室)을 나서자 주위는 벌써 어두워졌다. 다시 마을로 되 돌라와서 오늘의 숙소(宿所)가될 Mané-Ruthual 고인돌을 찾아들었다. 이 때가 10시경(時頃). 맨 바닥에서 그냥 누워 잘 수 없어 주위에서 부드러운 잡초(雜草)를 베어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른 여름철이라서 별(別)로 한기(寒氣)는 없었으나 살 냄새를 맡고 몰려든 모기떼들 때문에 자정 넘어까지 뒤척거리다 겨우 잠이 들었다.

6월 22일

새벽 5시(時)쯤 잠에서 깨었더니 밖은 벌써 훤히 밝아 있었다. 풀 더미를 밖에 내다 보리고 내부(內部)를 말끔히 치운 뒤 짐을 챙겨 하룻밤 신세진 인연(因緣)의 고인돌을 나섰다.

마을을 지나 북(北)쪽으로 뻗은 대로(大路)를 따라가다가 왼쪽을 꺾어져 Mane Lud고인돌을 찾았다.

예의 다른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남(南)쪽으로 선도(羨道)가 뚫리고 그안족에 말각방형(抹各方形)의 석실(石室)이 만들어져 있었다. 일변(一邊) 2m가량의 방형석실(方形石室)의 바닥으로는 일매(一枚)의 대판석(大板石)이 깔려 있었고 개석(蓋石)도 바닥들과 마찬가지로 일매 판석(板石)이 얹혀 있었다. 이 고인돌은 석실부(石室部)가 지하(地下)로 들어가 개석상부(蓋石上部)가 현지표(現地表)와 거의 같은 높이에 있었다. 석실내부(石室內部)의 벽면정면(壁面正面)에는 인면(人面)을 극(極)히 추상화(抽象化)시킨 음각화(陰刻畵)가 그려 있었고 선도좌측(羨道左側)의 벽면(壁面)에도 말각(抹角)의 M자형문(字形文) 7개가 불규칙(不規則)한 배열(配列)을 이루며 음각(陰刻)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다시 대로(大路)로 나와 1.5㎞가량 북(北)쪽으로 나가다가 우측(右側)의 샛길로 접어들어 아무것도 경작(耕作)하지 않은 밭 가운데에 위치(位置)한 고인돌을 찾았다. 동서(東西) 3m, 남북(南北) 3.5m의 거의 방형(方形)인 석실(石室)은 동(東)쪽이 개방(開放)되어 있었고 입구(入口) 양쪽에 지금은 단 한개씩의 판석(板石)만이 짧은 선도(羨道)처럼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이 원래(原來)의 완전(完全)한 구조(構造)인지 아니면 좀거 길게 뻗었던 것이 후세(後世)에 선도(羨道)의 석재(石材)가 다른 곳으로 옮겨 짐에 따라 짧아진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개석(蓋石)으로는 긴 장대판석(長大板石) 2매(枚)가 동서(東西)로 얹혀 있었는데 서(西)쪽의 개석(蓋石)의 상부(上部)에는 직경(直徑) 4~8m의 원혈(圓穴)이 동(東)쪽 반면(半面)에 다수(多數) 패여져 있었다. 또 서북우(西北隅)의 지석(支石) 2매(枚)의 표면(表面)에도 의미(意味)를 알수 없는 직선(直線)과 말각(抹角)의 ㄱ자형(字形)으로 이루어진 음각문(陰刻文)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으로 짧은 일정(日程)의 "브레따뉴"지방(地方)의 거석문화유적지답사(巨石文化遺蹟地踏査)를 끝내기로 하고 Auray로 나와 Bordeaux행(行) 열차(列車)를 탔다. 서해안(西海岸) 철도(鐵道)를 타고 거의 7시간만에 Bordeaux에 닿아 "유스·호스텔"에 숙소(宿所)를 정(定)했다.

6월 23일

아침에 숙소(宿所)를 나와 시내(市內) 한 복판에 위치(位置)한 Aqitaine박물관(博物館)을 찾았다.

"도르도뉴"지방(地方)에 분포(分布)한 여러 구석기시대유적(舊石器時代遺蹟)에 대한 기본지식(基本知識)과 세부일정(細部日程)을 마련하기 위해 "빠리"의 St. Germain en Laye의 선사박물관(先史博物館) Mohen씨(氏)가 소개해 준 Roussot씨(氏)를 만나기 위함이었다. 그는 이 박물관(博物館)의 선사담당학예관(先史擔當學藝官)으로서 "도르도뉴"지방(地方)의 구석기시대유적(舊石器時代遺蹟)에 관(關)한 많은 발굴(發掘)과 연구업적(硏究業績)을 쌓은 분이었다. 그의 연구실(硏究室)에는 각종(各種)의 석기(石器)·골각기(骨角器)등이 각(各) 분야별(分野別)로 보관(保管)되어 있었는데 대표적(代表的)인 것 몇개를 골라 출토지(出土地)와 특징(特徵)에 관(關)해 자상(仔詳)하게 설명(說明)해 주

었다. 그리고 또 내가 제시(提示)한 일정표(日程表)를 보고 꼭 봐야될 곳 몇군데를 추가(追加)시켜 주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나와 그 맞은편에 있는 미술관(美術館)을 구경한 후 시내(市內)구경을 나섰다.

항구도시(港口都市)인 이 Bordeaux는 포도주(葡萄酒)의 산지(産地)로 유명(有名)하며 다른 고도(古都)와 마찬가지로 오랜된 교회건물(敎會建物)도 여기 저기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일정(日程)에 따라 오늘은 시내관광(市內觀光)으로 하루를 보내고 숙소(宿所)로 돌아왔다.

6월 24일

아침 8시 기차(汽車)를 타고 Bordeaux를 출발(出發), Périgueux에 닿았다. 이곳에 온 것은 프랑스 문화성(文化省)의 Dordogne 지방선사유적(地方先史遺蹟) 관리부(管理部)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서 "라스꼬"동굴(洞窟)의 입굴(入窟) 허가서(許可書)를 발부(發付)받아야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나는 이 짧은 여정(旅程)에 오르기전, "빠리"의 "루블"박물관연구소(博物館硏究所)에서 얼마간 연수(硏修)를 받았었는데 연수(硏修)를 마치고 나서 연구소장(硏究所長)인 Hours부인(夫人)에게 이번의 답사계획(踏査計劃)을 말하였더니 필요(必要)한 추천서(推薦書)와 소개장(紹介狀) 몇장을 써 주었었다.

그가 써준 추천서(推薦書)를 들고 이곳의 담당자(擔當者)인 Sarradet씨(氏)를 찾았으나 그는 외지(外地)에 출타중(出他中)이고 그의 부인(夫人)이 업무(業務)를 대행(代行)하고 있었다. 7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이것 저것을 물으면서 쾌(快)히 「75-137」의 발급(發給) 번호(番號)가 찍힌 입굴(入窟) 허가서(許可書)를 건네주며 필요(必要)한 소책자(小冊子)도 여기 저기에서 꺼내어 주었다. 더구나 걸어서 돌아다닐 계획이라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은 너무 무리(無理)이니 거리가 먼곳은 소개장(紹介狀)을 써 줄테니 그 사람을 찾아가면 나를 차(車)로 안내(案內)해 줄것이라고 하며 한 동굴(洞窟)의 관리인(管理人)에게 소개장(紹介狀)까지 써 주었다. 그분의 자상(仔詳)한 친절(親切)에 몇번이나 감사(感謝)하며 역(驛)으로 나와서 les Eyzies행(行) 열차(列車)를 탔다.

les Eyzies는 "라스꼬"동굴(洞窟)을 비롯하여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의 동굴(洞窟), 암음주거지(岩蔭住居址)등 여러 유적지(遺蹟地)가 밀집분포(密集分布)되어 있는 이 지역(地域)의 중심지(中心地)로서 대부분(大部分)의 관광객(觀光客)들은 이곳에 숙소(宿所)를 두고 있었다. 우선 이곳의 국립선사박물관(國立先史博物館)에 들러 진열품(陳列品)을 둘러본후 한 직원(職員)의 안내(案內)로 보관고(保管庫)에 차곡차곡 쌓인 엄청난 수의 유물중(遺物中) 그 일부(一部)를 볼 수가 있었다.

박물관(博物館)에서 나와 가까운 "크로마뇽"암음주거지(岩蔭住居址)를 찾았다. 석회암(石灰岩)으로 이루어진 높은 단애하(斷崖下)에 이루어진 이들 주거지(住居址)는 벌써 19세기(世紀) 후반(後半)부터 그 존재(存在)가 알려져 오늘날 까지도 계속 발굴조사(發掘調査)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내가 이곳에 도착(到着)했을 때도 멀리 미국(美國)의 "켄터기"대학(大學)에서 온 조사단(調査團)을 비롯하여 몇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광경(調査光景)을 볼 수가 있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 숙소(宿所)를 정(定)하였다.

6월 25일

아침일찍 일어나 les Eyzies 동(東)쪽에 위치(位置)한 Font-de-Gaume동굴(洞窟)로 가서 개장시간(開場時間)을 기다려 안내원(案內員)의 안내(案內)를 받아 동굴(洞窟)속으로 들어갔다.

굴내(窟內)의 냉냉(冷冷)한 한기(寒氣)와 함께 코에 스미는 석회암(石灰岩) 동굴(洞窟)의 아릿한 냄새속에 전개(展開)되는 다색(多色)의 화려(華麗)한 원시인(原始人)들의 선(線)과 색채(色彩)의 풍염(豊艶)함에 우선 압도(壓倒)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굴(窟)은 전장(全長) 120m에 이르는데 중간부(中間部)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져 굴(窟)이 갈라지고 여기에도 좌우벽면(左右壁面)에 많은 벽화(壁畵)가 그려져 있었다. 입구(入口)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곧 좌측벽(左側壁)에 굵은 갈색선(褐色線)의 윤곽(輪廓)속에 그려진 한 마리의 들소가 나타나고 이어 우측벽(右側壁)에도 한쌍의 들소가 서로 엉클어져 있었다. 여기에서부터 좌우(左右) 양벽(兩壁)에는 대소(大小) 200에 달(達)하는 각종(各種) 동물(動物)이 온 공간(空間)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종류(種類)와 수는 다음과 같았다.

들소 80마리, 말 40마리, 맘모스 23마리, 순록(馴鹿) 및 사슴류(類) 17마리, 황소 8마리, 코뿔소 2마리, 고양이과(科)의동물 2마리, 늑대 1마리, 곰 1마리, 이밖에 극히 간단(簡單)한 선(線)으로 그린 사람 1인, 사람 손 4개와 함께 몇개의 의미(意味)가 불확실(不確實)한 부호(符號)와 그림이 있었다.

Font-de-Gaume 동굴벽화중(洞窟壁畵中) 들소와 순록(馴鹿)

이 굴(窟)은 18세기(世紀) 이후(以後) 무방비상태(無防備狀態)로 개방(開放)되어 왔었기 때문에 초기(初期)의 관리(管理)가 소홀(疎忽)했던 때에 관광객(觀光客)들이 들어와 그들이 써 놓은 이름등 낙서(落書)가 군데군데 남아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현재(現在) 일부(一部) 벽화내용(壁畵內容)의 개별명칭(個別名稱)은 이 낙서명(落書名)을 따서

Alain, Giraud등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안내원(案內員)의 재촉에 쫓기다시피 굴내부(窟內部)를 둘러보고 밖으로 나와 어제 Sarradet 부인(夫人)이 소개(紹介)해 준 이 Font-de-Gaume 동굴(洞窟)의 관리인(管理人)인 Archambeau 씨(氏)를 만나 소개장(紹介狀)을 내밀었더니 즐겨 반색을 하며 이곳에서 떨어진 몇몇 동굴(洞窟)을 자기와 함께 다니자고 하며 오후(午後)의 시간(時間) 약속을 하였다. 다시 les Eyzies로 나와 어제 오후(午後)에 들렀던 국립선사박물관(國立先史博物館)으로 갔다.

어제 만났던 직원(職員)의 안내(案內)로 다시 보관고(保管庫)의 석기류(石器類)와 각종(各種) 조각품(彫刻品)을 보고 나와서 그는 직접(直接) 석기제작법(石器製作法)도 보여주었다.

박물관(博物館)을 나와 아침에 약속한 시간(時間)에 Archambeau 씨(氏)를 만나 그와 함께 Cap-Blanc을 찾았다.

les Eyzies에서 동(東)쪽으로 7㎞가량 떨어진 최말기구석기시대(最末期舊石器時代)에 속(屬)하는 "마그달레니안"기(期)의 이 암음주거지(岩蔭住居址)에는 전장(全長) 14m의 암벽표면(岩壁表面) 중앙(中央)에 조각(彫刻)된 말 1마리를 비롯해서 모두 3마리의 말이 굵직한 부조(浮彫)의 형식(形式)으로 조각(彫刻)되어 있었다. 일부(一部) 깨져나간 부분(部分)도 있었으나 중량감(重量感)있는 조각(彫刻)솜씨는 매우 인상적(印象的)이었는데 과거(過去) 이 암음하(岩蔭下)에서 사체(死體)가 발견(發見)되었다 한다. 이 Cap-Blanc에서 나와 그 서편(西便)에 위치(位置)한 Combarelles동굴(洞窟)을 찾았다. 전장(全長) 250m에 이르는 이 꿀불꾸불하고 좁은 벽면(壁面)에는 말, 들소, 곰, 순록(馴鹿), 맘모스 등이 주(主)로 선각(線刻)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그 수(數)는 300에 달(達)하는 방대(尨大)한 것이었다. 이 가운데 대부분(大部分)은 극(極)히 간단(簡單)한 선(線)만으로 처리(處理)해 버리거나 또는 몇개가 복잡(複雜)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내용(內容)을 알아보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고 때로는 난해(難解)한 것들이 많았다.

내일(來日)은 오전중(午前中)에 Rouffignac 동굴(洞窟)을 가보기로 약속하고 마을로 나와서 그와 헤어졌다.

6월 26일

아침 나절에는 숙소(宿所)에서 이 지역일대(地域一帶)에 대(對)한 필요(必要)한 자료(資料)를 들춰 보고 10시반에 Archambeau 씨(氏)를 만나 여기에서 북(北)쪽으로 15㎞가량 떨어진 Rouffignac 동굴(洞窟)을 찾았다. 이 동굴(洞窟)은 그 전장(全長)이 무려 8㎞에 달(達)하는 긴 굴(窟)로서 이 중 대부분(大部分)의 벽화(壁畵)가 그려진 주굴(主窟)을 따라 돌아나오는 4㎞의 거리는 철로(鐵路)가 부설(敷設)되어 있어 소형(小形) 전기차(電氣車)로 돌아보게 되어 있었다.

이 동굴벽화(洞窟壁畵)는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 후기(後期)인 "오리냐시앙" 말기(末期)부터 "마그달레니안" 말기(末期)에 이르는 오랜 기간(期間)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천정(天井)과 벽면(壁面)에 채화(彩畵)와 선각화(線刻畵)로된 맘모스, 말, 들소, 코뿔소, 야생염소, 곰등이 군데 군데에 군집(群集) 혹은 단독(單獨)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 동굴(洞窟)도 15세기(世紀) 이후(以後)부터 개방(開放)되어 왔기때문에 여기저기 많은 낙서(落書)가 있었는데 낙서(落書) 때문에 벽화(壁畵)의 원상(原狀)이 마모(磨耗)되거나 손상(損傷)을 입은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았다.

les Eyzies로 나와서 점심을 먹고나서 서북(西北)쪽으로 뻗은 Vézère 계곡(溪谷)을

따라 올라가 Laugerie Haute에 닿았다. 이곳은 구석기(舊石器) 후기(後期)인 “페리고디안”중기(中期)부터 “마그달레니안”중기(中期)에 이르기까지 약(約) 20,000年에 걸친 기간(期間)의 전(全) 문화층(文化層)이 빠짐없이 포함(包含)되어 있는 곳으로서 한 눈에 구석기(舊石器) 후기(後期)의 거의 모든 문화(文化)를 요연(瞭然)하게 볼 수 있도록 층위(層位)를 잘 보존(保存)해 두고 있는 곳이었다. 이곳은 1863年에 그 첫 발굴(發掘)이 시작되어 그 뒤 1911年, 1921年, 1936年, 1939年 도합 5차(次)의 발굴(發掘)이 행(行)해져 2개의 두개골(頭蓋骨)을 비롯하여 다량(多量)의 유물(遺物)이 수습(收拾)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남(南)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움푹 들어간 암벽(岩壁) 사이에 위치(位置)한 Laugerie Basse를 찾았다. 이곳에는 “마그달레니안”중기(中期)부터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를 거쳐 철기시대(鐵器時代)에 이르기까지의 포함층(包含層)이 일부(一部) 남아 있었고 그 밑에는 이곳에서 출토(出土)된 일괄유물(一括遺物)을 전시(展示)하고 있는 조그만 박물관(博物館)이 있었다. 전시(展示)된 유물중(遺物中)에는 특(特)히 골각기류(骨角器類)는 그 자체(自體)는 물론 표면(表面)에 선각(線刻)된 가지각색의 조각(彫刻)과 함께 매우 귀중(貴重)한 자료(資料)들이라고 생각 되었다.

Laugerie Basse에서 다시 남(南)쪽으로 내려 가다가 오른쪽 비탈길 계곡(溪谷)을 따라 올라가면 길이와 폭(幅) 7~8m되는 조그만 방형동굴(方形洞窟)이 나오는데 이곳이 Abri du Poisson이다. 천정(天井)에는 연어나 송어로 보이는 고기 한마리가 부조(浮彫)되어 있었고 그 주위에는 방형(方形)으로 돌아간 굵은 정공(釘孔)이 나 있었는데 안내자(案內者)의 설명(說明)에 의(依)하면 이 정공(釘孔)은 근세(近世)에 이것을 따로떼어 내기 위해 작업(作業)을 하다가 실패(失敗)한 흔적(痕迹)이라고 하였다.

이곳을 나와 다시 les Eyzies로 돌아가 대망(待望)의 “라스꼬”동굴(洞窟)에 가기로 한 약속 시간을 기다렸다. 차(車)에 올라 목적지(目的地)로 향(向)하는 동안 Archambeau씨(氏)는 “라스꼬”에 관(關)한 발견(發見) 일화(逸話)에서 부터 그 내용(內容)에 관(關)해 친절(親切)하게 아르켜 주었다. 이 동굴(洞窟)이 처음 발견(發見)된 것은 1940年 9月 12日이며 그것은 극(極)히 우연(偶然)한 동기(動機)에 의(依)해 그 만년(萬年)의 신비(神秘)가 벗겨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당시(當時) 이곳을 산책(散策)하던 네사람의 청년(青年)중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개를 찾기 위해 조그만 땅굴 속으로기어 들어갔다가 굴(窟)속의 이 장관(壯觀)과 마주쳤다는 것이다. 그 후(後) 이 대발견(大發見)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국내외(國內外)에서 몰려든 관광객(觀光客)들에게 오랜동안 그대로 방치(放置)되었다 한다. 뒤늦게야 발견(發見) 당시보다 벽화(壁畵)에 큰 손상(損傷)이 있었다는 사실(事實)을 알고 그것은 외기(外氣)와의 균형상실(均衡喪失)과 많은 사람들이 호흡시(呼吸時) 내뿜는 탄산(炭酸)가스가 벽화(壁畵)에 치명적(致命的)인 타격(打擊)을 주었다는 결론(結論)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1963年, 이 세계적(世界的)인 원시미술(元始美術)의 보고(寶庫)는 완전폐쇄(完全閉鎖)되고 그에 대(對)한 보존방안(保存方案)이 다각도(多角度)로 연구(硏究)되기 5년(年), 최선(最善)의 보존책(保存策)은 굴내(窟內)의 온습도(溫濕度)를 발견전(發見前)의 외기(外氣)와의 단절상태(斷絶狀態)에서의 그것에 맞추고 관람객(觀覽客)은 하루에 5명(名)이내(以內), 공개시간(公開時間)은 일몰후(日沒後), 일주일(一週日)에 이틀은 입굴불가(入窟不可)라는 엄격(嚴格)한 규정(規定)을 마련하여 1969年부터 다시 제한공개(制限公開)하기에 이르렀다 한다. 그의 이러한 설명(說明)을 들으면서 나에게 이러한 값진 기회(機會)를 마련해준 여러분에게 새삼 감사(感謝)

의 생각이 다시 들었다. Montignac에서 남(南)쪽으로 2㎞ 가량 떨어진 낮은 언덕 위에 위치(位置)한 "라스꼬"동굴(洞窟)에 닿았다. 생각했던 것 보다는 주위(周圍)가 나무 한 산(閑散)하여 의아(疑訝)스러울 지경이었다. 관리사무소(管理事務所)에 들어가서 우리보다 앞서 도착(到着)한 미국인(美國人) 男女 2名과 함께 중년(中年)의 관리인겸(管理人兼) 안내원(案內員)으로 부터 몇가지 유의사항(留意事項)을 들었다.

굴(窟)안에 들어가서는 절대 벽면에 손을 대지 말것이며 말도 하지말고 의문(疑問)나는 것이 있거든 다보고 밖으로 나와서 물으라는 것이었다. 곧 이어 들어온 부인(夫人) 한사람과 함께 모두 다섯사람이 굴(窟)속으로 향(向)했다. 평지(平地)에서 계단(階段)을 타고 내려가서 굳게 닫힌 철문(鐵門)을 밀치고 들어가니 안에 덧문이 있었다.

이 덧문 앞에는 소독조(消毒槽)가 마련되어 있어 입굴객(入窟客)은 여기에서 신발을 씻어 외부(外部)로 부터의 잡균(雜菌)의 이입(移入)을 막자는 것이었다. 굴내(窟內)에 들어섰으나 웬일인지 안내자(案內者)는 점등(點燈)을 하지 않고 잠시동안 컴컴한 곳에 일행(一行)을 그대로 세워두었다. 모두들 숨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간간히 침 삼키는 소리만 새어 나왔다. 이윽고 점등(點燈)과 함께 평쳐진 이 놀라운 장관(壯觀). 온 벽면(壁面)을 꽉 메우다시피 이루어진 소와 말을 주(主)로 한 각종동물(各種動物)은 그것이 하나의 벽화(壁畵)라기 보다는 생동(生動)하는 실물(實物)의 대행렬(大行列) 바로 그것이었다. 안내자(案內者)의 열(熱)띤 설명(說明)이 시작 되었으나 장려(壯麗)한 광경(光景)에 도취(陶醉)되어 그의 설명(說明)은 귀에 들어올 여유(餘裕)가 없었다. 입구(入口)에서 부터 넓게 시작되는 주실(主室)인 "황소실(室)"을 지나 곧장 뻗어지는 좁은 굴(窟)이 계속(繼續)되는 한편, 주실(主室) 거의 끝에서 오른쪽으로 꺽어지는 좁은 통로(通路)를 지나면 주실(主室)보다 약간 좁은 후실(後室)이 나타난다. 그 길이는 모두 200m에 불과(不過)하였지만 각(各) 벽화(壁畵)의 선명(鮮明)한 색감(色感)과 선(線)의 표현(表現)은 다른 유럽의 동굴(洞窟)과는 비교(比較)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놀랄만큼 생생(生生)한 상태(狀態)에 대(對)해서는 이 굴(窟)이 갖는 자연적조건(自然的條件)에도 힘 입은 바가 크다고 하였다.

라스꼬 동굴벽화중(洞窟壁畵中)의 소와 말그림

동굴(洞窟)을 형성(形成)하고 있는 극히 가는 석회입자(石灰粒子), 그리고 종유석(鐘乳石)의 생성(生成)을 막는 방수층(防水層), 특히 벽화(壁畵)를 고착(固着) 보존(保存)시키는 구실을 하는 희끄무레한 방해석(方解石)으로 이루어진 엷은 막(膜)은 이 벽화(壁畵)가 그려진지 몇 만년(萬年)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채화당시(彩畵當時)의 색감(色感)을 그대로 간직하게 하는 천혜적(天惠的)인 여건(與件)이 되어 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런 외기(外氣)와의 접촉(接觸)이 가져온 변화(變化)는 이젠 돌이 킬 수 없는 과거(過去)의 사실(事實)로 접어 두고라도 앞으로는 더 이상의 변화(變化)가 없도록 범국가적(汎國家的)인 보존방안(保存方案)의 연구(硏究)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굴내(窟內) 여기 저기에 거미줄처럼 엮어진 각종(各種) 측정장치(測定裝置)와 보호설비(保護設備)는 물론이려니와 공기조절장치(空氣調節裝置)를 위한 발동시설(發動施設)도 굴내(窟內)에 미칠 진동(振動)을 우려(憂慮)하여 거리가 떨어진 관리실(管理室)의 뒷켠에다 세워 두는 등 여러가지 설비(設備)를 마련해 두고있지만 아직도 근본적(根本的)인 해결방안(解決方案)은 없다는 것이었다. 모두 네군데의 굴실(窟室)에는 황소·암소·말·사슴·들소·야생염소등 수백(數百)에 달(達)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이 중에 몇개는 끌 같은 첨기(尖器)로 윤곽(輪廓)이 선각(線刻)되어 있었다. 이들의 대부분(大部分)은 "오리냐시앙"기(期)의 것이고 일부(一部)는 "마그달레니안"기(期)"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推定)되고 있다.

일부(一部) 나타나고 있는 선(線)의 중첩(重疊)이 이 벽화(壁畵)가 오랜 기간(期間)에 걸쳐 각기(各己) 다른 문화기(文化期)에 그려졌다는 가설(假設)을 공고(鞏固)히 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제한시간(制限時間)인 30분(分)을 10여분(餘分)이나 지나서 굴(窟)을 빼져나왔지만 마치 꼭 봐야할 것을 빠뜨린 것 같은 미련(未練)을 지울수가 없었다. 굴(窟)을 나와서 관리실(管理室)에 들어가 30여분(餘分)동안 안내자(案內者)와 문답(問答)을 계속하다가 어두운 밤길을 나와 les Eyzies로 향(向)하였다.

어제 본 "라스꼬"동굴(洞窟)을 마지막으로 이곳 "도르도뉴"지방(地方)의 선사유적(先史遺蹟)에 대한 답사(踏査)를 끝낼 계획이었지만 다음 행선지(行先地)인 Limoge행(行) 기차(汽車)가 오후(午後) 3시반(時半)에야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이곳에서 남(南)쪽으로 3㎞가량 떨어진 La Mouthe 동굴(洞窟)을 찾았다. 너무 일찍 닿아 30여분(餘分)을 기다리다가 석유(石油)램프를 들고 들어가는 안내자(案內者)의 뒤를 혼자서 좇아갔다. 입구(入口)에는 "마그달레니안"기(期)의 유물(遺物)이 출토(出土) 되었다는 널직한 공간(空間)이 있었고 좁은 굴(窟)을 따라 100m쯤 들어가 벽면(壁面)에 조잡(粗雜)한 형태(形態)로 그려진 선각화(線刻畵)를 보았다.

말·들소·순록(馴鹿)등의 형태가 극(極)히 소박(素朴)한 선각(線刻)의 일부(一部) 표면(表面)에는 황토(黃土)등을 발라 색감(色感)을 나타내려했던 것 같았다.

les Eyzies로 나와 다시 Laugerie Basse로 가서 부근(附近)의 발굴현장(發掘現場)을 둘러본 후(後) 숙소(宿所)로 돌아와 짐을 꾸렸다.

—맺 는 말—

이로서 짧은 기간(期間)이었지만 매우 보람찬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여행(旅行)을 마쳤다. "브레따뉴"지방(地方)에서 둘러 본 여러 거석문화(巨石文化)의 유적지(遺蹟地)는 그 종류(種類)도 많았지만 각(各) 종류(種類)에 따른 여러가지 다른 양식적(樣式的) 변화(變化)는 나에게 폭(幅)넓은 다양성(多樣性)의 의미(意味)를 깨닫게 해 주었다. 이들 거석문화(巨石文化)를 갑자기 우리 주변(周邊)의 그것과 직결(直結) 시키려는 것은 아니지만 한 문화(文化)의 발생(發生)이 고립적(孤立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란 극(極)히 드물다는 문화(文化)의 전파성(傳播性)에 힘 입어 이들간(間)에 일루(一縷)의 맥락(脈絡)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期待)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하튼 "유라시아"대륙(大陸)의 동단(東端)과 서단(西端)이라는 지리적(地理的)인 원격(遠隔)에 비추어 그 사이를 잇는 지중해연안(地中海沿岸), 중앙(中央)아시아, 인도(印度)를 포함(包含)한 동남아(東南亞) 지역(地域)등에 분포(分布)하는 다른 동류(同類)의 문화(文化)에 대(對)한 충분(充分)한 연구(硏究)가 이루어진 뒤라야 거론(擧論)될 수 있는 문제(問題)임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도르도뉴"지방(地方)에서의 구석기문화(舊石器文化) 유적지(遺蹟地)를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피상적(皮相的)으로만 들어왔던 이들 문화(文化)가 어떤 것인가를 직접(直接)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짧은 여행(旅行)의 보람이었다.

참고자료목록(參考資料目錄)

1. T.G.E. Powell, L'art préhistorigue, Larousse, 1967
2. Michelin, Bretagne, Pneu Michelin, 1972
3. P.R. Giot, Barnenez, Direction des Antiquités préhistoriques de Bretagne, 1970
4. P.R. Giot, Menhir et Dolmen, Edition Jos Le Doaré, 1975
5. M. Jacq, Carnac, Imprimerie Cornouaillaise-Quimper(17판(版))
6. J. L'Helgouach, Les Sépultures Megalithiques en Armorique, Imprimerie Alenconnaise, 1965
7. Michelin, Périgord, Pneu Michelin, 1973
8. M. Sarradet, Font-de-Gaume, Pieere Fanlac, 1973
9. M. Sarradet, Lascaux, Pieere Fanlac, 1973
10. J. Maury, Laugerie Basse-Les Fouilles de J.A. Le Bel, Impriemerie Mannoyer, 1934